

## □ 컴퓨터 단상 □

## 카네기 멜론대학을 방문하고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이영희\*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이후에는 “정통대”라고 부르겠음)가 개교한 지도 벌써 일년하고도 반이 흘렀다.

미래 경계는 디지털 경계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의

척도는 정보통신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 분야의 고급인력의 절대 부족현상이 예상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국내의 각종 보고서에 써어져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필요성 제기에 힘 입어 정통대가 태동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은 캠퍼스를 ETRI에서 예전 대덕 SK텔레콤 연구소에 캠퍼스를 옮겨잡고 있다. 캠퍼스의 수준이 높아진 그 이상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즈음에 카네기 멜론대학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여러 명의 그곳 교수들을 만나고서 컴퓨터 교육과 연구 관련하여 느낀 점을 기술코자 한다. 이제 대학교 교직 경력이 미미한 필자가 교육 및 연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어설플 수도 있겠으나, 그 반면에 신선할 수도 있다고 우기면서 이 글을 쓰고 싶다.

우선적으로 느낀점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 경우 산업체에서의 기술 수준 및 발전 속도가 학계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기술의 창출, 새로운 기술분야의 창출이 정보통신 분야 학계의 나아갈 길이라고 보인다. 어떤 교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의 박자를 쫓아가는 가라오케 기계를 연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연주 습성을 기계가 학습하는 연구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어떤 음악이라도 악보에 따라 학습한 연구자의 습성대로 모든 곡을 연주하게 된다. 꼭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연구의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소 엉뚱하다고 보일 정도의 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두 번째는 학교의 색깔을 분명히 가져간다는 점이다. 카네기 멜론대학의 경우는 다분히 실용적이고 산업화에 충실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필자에게는 비춰졌다. 그러한 색깔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대학 입학년부터 전공관련 과목을 주로 제공하는 등 커리큘럼도 과감하게 바꾼다고 한다. 산업계에 영향을 크게 주는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산업계의 역군을 키워내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작년에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한국사람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경우도 교수라는 직업의 선택보다는 벤처 기업 창립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기술의 개발에 열중하고 있었다. 만난 교수 중의 한 사람은 실제로 학생들과 벤처 기업을 창립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립한 벤처기업을 수천만 달러에 팔았다고 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다른 대학들 또한 학교의 특성을 살려 어떤 특정분야의 leading edge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교육이 강한 색깔의 학교를 키워 나간다는지 하는 등 특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경우에도 보다 역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색깔있는 대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희원, E-mail : yhlee@ns.icu.ac.kr

마지막으로, 보고 느낀 점의 하나는 각종 평가에 논문 등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해당분야 기술발전 또는 산업계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분야를 창출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등 정성적이고 실질

적인 평가가 중요시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평가에서도 SCI 논문편수 또는 인용 횟수 등 정량적 요소의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해당 연구분야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하여 평가의 잣대를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언젠가는 있다고 본다.

● '99 Y2K해결을 위한 영남지역 워크샵 ●

- 일 자 : 1999년 5월 27일(목)
- 장 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 주 최 : 영남지부
- 문 의 처 : 부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차의영 교수  
Tel. 051-510-2219

● 제3회 알고리즘과 계산 한일공동 워크샵 ●

- 일 자 : 1999년 7월 19일(월)~20일(화)
- 장 소 :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 주 최 : 컴퓨터이론연구회
- 문 의 처 :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학과 이상호 교수  
Tel. 02-3277-2313, Fax. 02-3277-2306  
E-mail: shlee@mm.ewha.ac.kr